

진리 구하는 길만이 가장 큰 인간 위업



성태웅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④6 금각 은각오괴 잡아들이는 손오공

수미산, 아미산, 태산 밑에 깔린 손오공,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현장법사 스승으로 모시고 경가 지러 가는 길, 왜 이리도 장애가 많은가!

본디 울바른 길 가는 데는 장애가 도반이라 하지만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말 소용없다. 은밀히 수호하던 여러 신장들 놀라서 달려온다. 세 산의 신들을 다그친다. 당신들이 깎아뭉개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는가? 하늘 세계를 뒤집어엎었던 제천대성이여, 이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 그 양반 설갈 소문은 들었겠지?

그 성질 아직 안죽었거든? 당신들 밑에서 빠져 나오는 순간 여의봉 한 대씩만 맞으면 아차하면 사망이요 최소한 중상이여, 세 산신들 벌벌 떨고 구원을 요청한다. 우선 당장은 놀려 있던 손오공 풀어주고 수호 신장들의 중재로 여의봉으로 얻어 맞는 건 면하는 세 산신들.

요괴의 술법이 너무 뛰어나 자신을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니 손오공 기가 막힌다.

뭘 요괴가 이리도 권세가 세냐! 그러다 보니 요괴의 부하가 손오공 잡으러 신기한 보배 들고 오는 것을 알게 되고 손오공 잡히는 둔갑 사기술로 호리병과 정병을 갈취한다.

도사로 둔갑하고, 털 뽑아 멋진 호리병 만들고 보배 들고 손오공 잡으러 가는 줄개를 앞에 나타나 너희들 호리병이나 정병은 사람 불려서 대답하면 그 속으로 잡아넣지만 내가 가진 호리병은 하늘을 담는다는...그것을 보여주지 위해 터무니 없고 전무후무한 희세의 사기극도 벌인다. 옥황상제를 협박하여 이 사기극 성공시켜주지 않으면! (뿔말 생각)

결국 나타태자가 진무군의 큰 검은 깃발 빌어 해와 달을 몽땅 가려 천지를 암흑에 빠뜨려 하늘을 삼킨 흉내를 내곤, 적당히 꼬뜨겨 두개의 보물과 맞바꾼다.

옥황상제까지 가담한 사기극이러니, 대단하다 손오공! 장하다 손오공! 희세의 공갈 사기영웅 손오공! 그 뒤로도 이 영웅의 행각은 이어진다. 요괴 부하로 변신하여 요괴 어머니 노릇하는 요괴 때릴죽이고 자동포박기인 황금 포승 빼앗기, 손오공 동생 공오손, 오공손으로 가장하여 금각대왕 은각대왕 놀려먹으며 그들이 가진 보물 차례로 빼앗기~

줄줄이 이어지는 사기 대마왕의 행각이로다. 그 가운데 수한 반전도 겪고 고생도 했다. 공오손으로 가장했을 때 가까이들이라 관함을 줄 알고 대답했다. 호리병에 빨려 들어가지만(진짜 대단한 병! 가까 이름까지도!) 태상노군의 단로(丹爐)도 견뎌낸 손오공 몸통이 여찌 이름 따먹기 호리병 속에서 녹을까! 모든 난관 극복하고 결국 금각 은각대왕을 그들이 자랑하던 이름의 따먹기 호리



그림 · 최주현

병 속에 담아 녹여 버리느냐! 오 대단하다! 사기 영웅, 사기 대마왕! 어? 이게 아니구나! 정도를 걷는 우리의 영원한 스타 손오공!

이제 자신은 이름의 집착을 벗어났는가? 오히려 이름으로 사람을 놀려던 요괴를 가두었구나! 그런데 이게 또 웬일?

이번에는 태상노군께서 나타나신다. 내 보배 돌리도, 돌리도~~~~~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래유? 알고 보니 이게 다 관세음보살님 능간이란다. 현장법사 일행을 시험하기 위해 태상노군께 특별히 청하여 태상노군의 시동들을 요괴로 분장시키고 여러 보배 돌려 내려 보냈나?? 금각대왕은 금화로 지키던 동자, 은각대왕은 은화로 지키던 동자, 호리병과 정병은 선단과 물 담긴 병... 애공! 보살님 아니라면 그냥 팍! 하고 싶지만... 어찌됐나,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이 하릴없이 보배들 모두 돌려드리니 호리병 속에 녹아있던 금각 은각 시동으로 원상복원되고... 요괴잡은 손오공, 하늘로 돌아가는 태상노군 뒤통수 쳐다보게... 그 눈길에 담긴 그 마음, 무슨 말을 하고플까?

"다음에는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음소서" 억울하고도 슬픈 마음 접고 오늘도 길을 간다, 꿈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길~~~

금각대왕 은각대왕 이야기는 서유기에서도 꽤 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지요, 그 속에 담긴 의

권위에 기대던 산신일행
손오공 만나니 벌벌 떨어
힘 위에 힘이 있음을 알아야

미도 많고, 반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미있어도 길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면의 한계... 삼채선생이 열심히 압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속에 담긴 다른 이야기들을 해 볼까요?

요괴 은각대왕의 술법에 부림을 당하여 손오공을 놀려 버린 세 산의 신들, 자신들이 누르고 있는 원승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는 정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오공이 옛날에 천궁을 뒤집어엎은 사건은 알 만한 사람, 아니 알만한 신들은 다 아는 사건이지요. 옥황상제도 어찌하기 힘들었던 그 개자반 손오공, 지금 아무리 개과천선하여 불문에 들었었지만 옛날의 성질 쥐꼬리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보통 산신이라 하면 그래도 큰 권위를 가진 신 아닌가요? 거기다가 아미산, 수미산, 태산 같은 신이라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신일 것 같은데, 이런 신들을 요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손오공도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무슨 요괴이기에 나도 부리지 못하는 신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부린다는 것인

가? 손오공이 신들을 좀 부릴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의봉 휘둘러 겁주어서 부리는 것이지요. 진정 마음으로 산을 불러 머리를 누르게 한다든가 하는 짓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요괴는 이 큰 산신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불려서 당직까지 시켜 한다는 거예요. 정말 비보통의 특별 요괴라 할까요? 그러니까 배운 재주의 영역이 각각 다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산신들은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은 관리라 할 수 있겠지요. 그 관리를 움직이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조폭도 폭력을 앞세워 관리를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또 남 앞에 드러내고 할 수도 없구요. 그런 직접적인 방법 말고 효과적으로 무엇이었어요? 공문을 내려보내거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관리야 상하관계가 분명하니,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움직일 수밖에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일을 한다는 막강한 기관힘을 내세워 움직이는 거지요. 요괴들은 바로 그런 술법을 배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막강한 비밀스런 힘을 가진 기관의 힘을 동원한 것인지 모르지만, 관리가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힘을 쓴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요괴가 닦은 술법이겠지요. 손오공이 다른 계통의 술법을 닦았으니 이 방면에서는 요괴를 당할 수 없구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나 관리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세상 일이 쉽겠어요? 공문서로 된 것이라도 그 공문이 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것이었더라면? 더구나 비밀스런 기관이라면 밖으로 드러내기 힘든 것이겠지요? 그렇게 되어 시행된 사항이 어떤 인물을 완전히 목사발로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문도 모르고 당한 그 인물이 알고 보니 엄청난 분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었더라. 성질도 정말 더러워서 남한테 조금이라도 당하고 싶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더러, 더러, 더러, 몇 번만 겹치면, 일을 집행한 관리로서는 정말 재수 운 불은 경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성질 더러운 그 인물에게 한 바탕 수모를 겪는 수밖에요.

지금의 이 경우가 바로 그러네요. 천궁을 뒤집어엎었던 전설적인 존재인 제천대성 손오공, 그가 이제 요괴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불법을 위해 나섰으니... 석가여래를 후견인으로 둔 셈인가요? 힘도 있고, 성질도 더러운데, 속칭 '뺨'이라는 것까지도 든든한 인물을 건드렸으니, 산신들이 벌벌 떨만하지요? 그래서 은밀히 수호하던 오방의 신들인 오방아제에게 사정하여 겨우 손오공의 여의봉 매질을 면하는 구차한 모습... 예구, 신들도 참 불쌍하여라! 힘 위에는 또 힘이 있으니, 힘으로 앞을 닦는 길은 끝이 없구나! 오직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그 길만이 앞을 닦지 않는 큰 길이로세!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 (100매)
내지 12,000원
집계부착 20,000원
*크기 : 8.5cm×21cm

봉축연꽃리본 (100개)
일반 18,000원
고급 27,000원

일반연일 6,000 **바림연일 7,000** **한지바림연일 8,000** **국산 LED전구 (50개) 85,000원**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 65,000
- 25cm (50구) @ 65,000
- 30cm (50구) @ 65,000
- 35cm (50구) @ 70,000
- 40cm (50구) @ 73,000
- 50cm (50구) @ 75,000
- 1 m (50구) @ 90,000
- 2 m (25구) @ 80,000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공단등(6cm) @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cm) @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cm) @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cm) @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cm) @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cm) @ 90,000원 (1개이상)
- 황금등(6cm) @ 2,700원 (60개이상)
- 황금등(8cm) @ 3,300원 (30개이상)
- 황금등(10.5cm) @ 6,500원 (16개이상)
- 황금등(13cm) @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 (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 (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 (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 (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 (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 (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점등 (12cm)(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하단부분은 생·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cm×70cm)